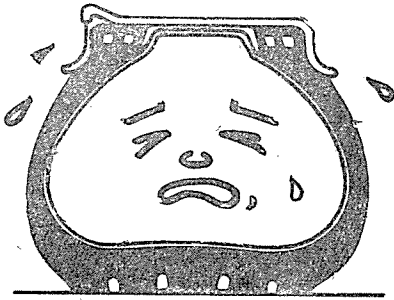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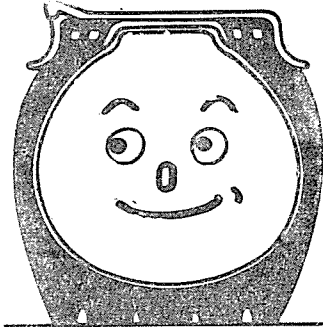


타이어 事故의 主要原因이 되는 過積載를 하지 맙시다 !!

- 모든 것에는 제각기 使用範圍와 限界가 있듯이 타이어의 負荷能力에도 限界가 있다.
- 過積載한 貨物車의 경우, 타이어에 負荷된 重量이 타이어의 負荷能力을 超過하므로, 타이어가 變形·發熱하여 여러 가지 타이어 事故를 일으키거나 또는 能力이 低下되어 危險하게 된다.
- 이와 같이 過積載는 큰 損失을 가져오므로 絕對로 避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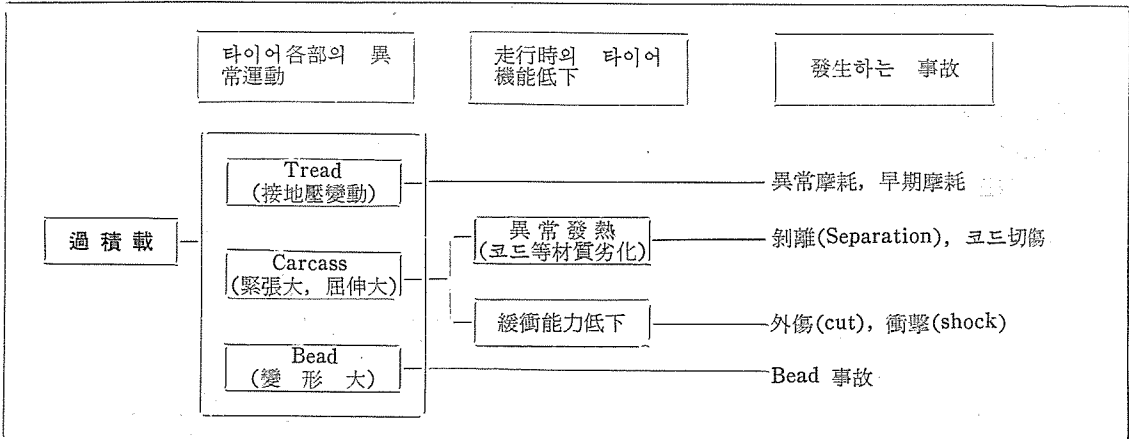
過積載



定積載

☆☆ 타이어는 살아있다. 過積載로 酷使하지 말자 ☆☆

過積載가 타이어에 미치는 影響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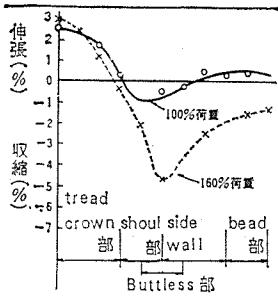


(解) (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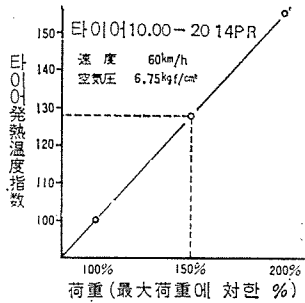
(1) 타이어의 耐熱限界(125°C)와 事故

타이어의 side部를 비롯한 各部는 極度로 變形, 發熱하여 耐熱限界를 넘어서 타이어는 事故를 일으킨다(그림 1, 寫眞 ①, ②,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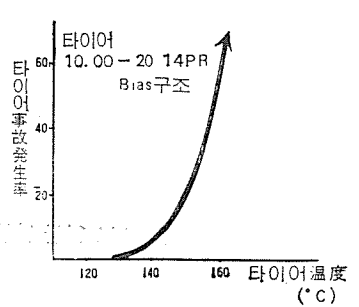
負荷된 荷重과 타이어溫度의 關係는 그림 2 와 같으며, 荷重이 150%를 넘으면 타이어 溫度는 耐熱限界를 넘는다. 또 타이어 溫度가 上昇하면 事故發生率이 急激히 增加한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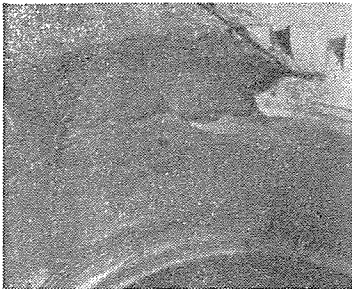
[그림 1] 荷重과 타이어의 變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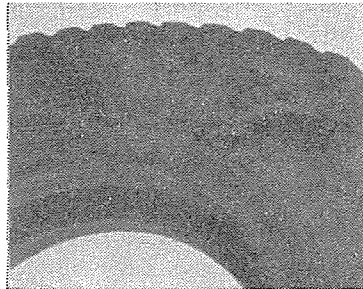
[그림 2] 荷重과 溫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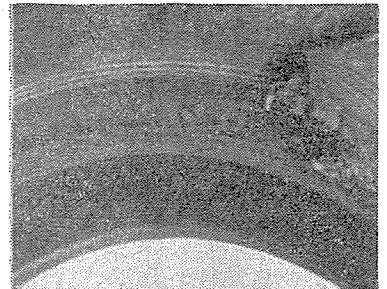
[그림 3] 타이어溫度와 事故發生率



異常發熱에 의한 剝離 (寫眞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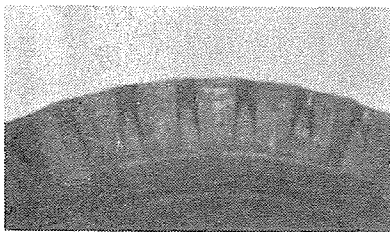
코드 切傷 (寫眞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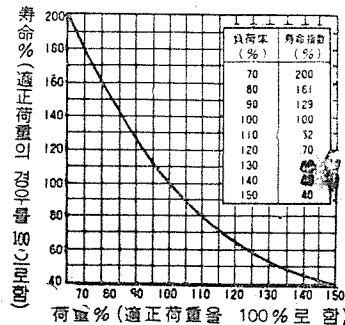
Bead 事故 (寫眞③)

(2) 接地壓의 變動과 異常摩耗

트레드(타이어의 接地部)의 움직임이 커지고 트레드의 兩 Shoulder部의 接地壓도 높아지므로 그 該當部分이 異常摩耗를 일으킨다(寫眞 ④). 또 타이어의 耐摩耗性도 低下되므로 壽命이 짧아진다(그림 4).



異常摩耗 (寫眞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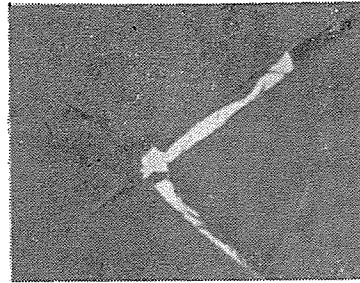
[그림 4] 荷重과 타이어의 摩耗壽命

(3) 타이어의 耐衝擊性的 低下

荷重의 增加에 따라 Carcass는 恒常緊張狀態로 되며 타이어의 緩衝能力이 低下되고 路面이나 또는 路面上의 異物 등으로 因하여 外傷이나 또는 衝擊傷을 받기 쉽다(寫眞 ⑤, ⑥).



外傷으로 인한 破壞 (寫眞⑤)



衝擊으로 인한 破壞 (寫眞⑥)



《p. 27의 계속》

(2) 經濟條項

① 前文目的: 表現方法에 있어서 生産國과 消費國間에 對立이 있다. 즉 生産國은 經濟協定的 色彩를 깊이 注入시키고자 하는 意志를 가지며, 또 合成고무에 대한 規制를 主張하고 있다.

② 指標價格: 天然고무의 各種 grade 內에서 RSS 1號를 代表 grade로 擇하는 案과 RSS 1, 3號, TSR 20의 4개 市場(Kuala Lumpur, Singapore, London, Newyork)의 FOB價格의 加重平均으로 내는 複合價格을 擇한다는 案이 있다. 後者가 採擇될 것으로 보인다.

③ 在庫의 品種構成: RSS 1, 2, 3號, TSR 5, 10, 20의 6種으로 될 可能性이 농후하다.

④ 在庫의 所在地: 生産國은 生産國에, 消費國은 生産國과 消費國雙方에 들 것을 主張하고 있어 結論을 내지 못하였다.

其他, 最初의 據出을 10%로 하느냐, 15%로 하느냐 등의 대강의 줄거리는 合意를 보았으나, 細部的으로는 아직 未決部分이 많이 남아있으므로 좀더 時間이 必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말레이시아의 一次產品相이 表明한 바와 같이, 現在 天然고무 價格이 最高價格을 上廻하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今後에도 한층 더 強勢傾向으로 豫想되므로 當面課題인 緩衝在庫의 實現은 展望이 흐린 것으로 보고 있다. 商品協定은 低價格時밖에 成立하지 않는다는 過去의 例로서도 이 協定案을 疑問視할 수도 있다.

그러나 生産國側은 74年~75年の 大暴落이 아직까지 腦裡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또 消費國側도 그 結果 天然고무에서 椰子油로 轉換된 것 등을 考慮하면, 最低價格의 保證體制를 整備하여 安定供給의 確保를 꾀하는 것은 意味深長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 交渉會議은 6月の 마지막 週에서 7月の 第2週까지 3週間 제네바에서 開催하여 條文化段階로 들어가게 된다.

(79. 5. 7 고무報知新聞, 79. 6月刊 타이어)